

광주 방직공장터 도로·공원, 복합쇼핑몰 개점전 설치

시·사업자, 공공기여·사업계획 협약
착공후 5년간 현금 3천억 분납기로
특급호텔 포함 랜드마크 타워 건립
내달 '더현대 광주' 등 인허가 절차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가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복합쇼핑몰 개점 전에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또 공공기여금(현금) 3000억원은 착공부터 준공 사이 5년에 걸쳐 광주시에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과 함께 공공기여와 랜드마크 특급호텔에 대한 이행각서도 제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제1차PFV 소경용 대표, 신영 손종구 대표, 우미건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제1차PFV 대표이사(오른쪽)와 전방, 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장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규모, 제공시기, 분납방법, 랜드마크 타워 등 사업계획 이행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2899억원)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

광주시 제공

해 신속한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금 3000억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5년에 걸쳐 광주시에 분납하기로 했다.

또 랜드마크 특급호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핵심 전략시설인 랜드마크 타워가 어등산 개발사업처럼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소경용 휴먼스홀딩스제1차PFV 대표는 "그동안 광주시와 치열한 협상을 해왔고, 여러 난관을 뚫고 고시를 앞두게 돼 뜻깊다"며 "세계 유수의 개발사업에 손색이 없는 광주의 랜드마크 작품을 남기겠다. 원활한 공공기여 이행 등 광주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州市는 그동안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공정 원칙에 입각한 협상과정을 진행해왔

고, 오늘은 공공기여와 사업계획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다"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사람이 찾는 광주가 되기 위해 광주에 큰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30일 고시한다.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 완료됐음을 뜻한다.

부지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더현대 복합쇼핑몰도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말 개점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롯데백, '강원약초농산' 오픈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 다양한 약초 상품을 선보이는 '강원약초농산' 매장이 지난 28일 신규 오픈했다. 강원약초농산은 각종 산야초를 활용해 만든 한방차와 한방식재료, 유기농허브차 등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국화꽃원물, 상항버섯, 영지버섯, 감초 등 원물을 비롯해 각종 허브차, 청, 꿀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보틀병커, '와인·양주 정보' 공식 웹페이지 오픈

보틀병커는 와인과 양주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공식 웹 페이지를 신규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웹 페이지는 별도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와인과 양주 상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방법이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와인과 양주명을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뜨고, 상품명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보틀병커에 취급하는 전체 와인과 양주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틀병커 매장 내 가격표의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웹 페이지에서는 보틀병커가 자체 구축한 와인/양주 상품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산지, 도수, 맛, 와이너리와 증류소 등의 상품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와인의 경우 고객 이해도를 높여주는 직관적인 시음 노트와 함께 어울리는 음식 등 연관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주의 경우 보틀병커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이 양주를 구매한 분들이 같이

구매한 양주', '같은 증류소에서 판매 중인 양주' 상품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품의 매장 별 재고 위치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틀병커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도 재단장한다. 보틀병커에서 취급 중인 1000여개의 양주 데이터를 추가해 양주 상품군까지 검색 및 상세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고객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샤또'와 '샤토', '샤르도네'와 '샤도네이' 등 와인 수입사에 따라 발음 표기가 달라 상품명이 상이한 와인과 양주의 특성을 고려해 검색어 자동완성 서비스 및 유사 검색어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로 '주이용 지점' 기능을 도입해 주이용 지점의 재고 보유 상품 보기 기능도 도입했다.

보틀병커는 앱 리뉴얼을 진행한 지난 15일 이후 앱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그린알로에, 신제품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 출시

멀티비타민 미네랄 11종 함유
자연유래 부형제로 안전성 입증

알로에전문기업인 ㈜그린알로에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잎추출물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항산화 작용하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11종을 함유한 '그린당 바나바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최근 인슐린저항성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때보다 혈당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측은 "바나바잎에서 추출한 코로솔산이 1일 섭취량 기준 130mg으로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1일섭취최대함량을 함유했다"며 "꼼꼼하게 엄선했던 자연유래성분



들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혈당케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당바나바플러스는 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추출물과 건조효모에서 유래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10종, 비타민E를 주원료로 함유하고, 혈당관리를 위해 여주추출물, 구아바잎, 피니톨, 실크펩타이드, 밀, 귀리식이섬유, 호로파종자추출물, L-카르니틴, 미국산유기농 알로에베라, 블루베리 등 부원료들을 엄선했다.

제품의 맛, 향, 보존성분도 합성이 아닌 자연유래 부형제를 함유해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제조했다.

또한 전 성분에 중국산 원료를 단 1%도 함유하지 않은 것도 그린알로에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회사측은 평소 식후 혈당상승 억제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탄수화물과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분, 폭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 분들에게 섭취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송은 그린알로에 대표는 "혈당관리는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지속적인 고혈당상태와 잦은 혈관스파이크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그린당 바나바플러스는 식후 혈당조절을 위한 자연유래 복합기능성분으로 구성해 건강하게 혈당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업계 최초 'AI+ 인증'

'AI제품 품질' 한국표준협회 부여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AI+ 인증'을 국내 주거용 시스템에어컨 중 업계 최초로 취득했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인공지능(AI)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을 근거로 부여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국제표준(ISO/IEC 25023·25051·25059)을 기준으로 제품의 신뢰성과 기능적합성, 보안성 등의 소프트웨어 품질시험과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에 따라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현장 평가하는 등 엄격

한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새롭게 AI+ 인증을 받은 제품은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DVM HOME 무풍 1WAY', 'DVM S 에코' 등 실내가·실외기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등 12개 가전 품목에서 인증을 받아, 업계 최대 AI+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에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레이더 센서는 사람의 움직임 감지하고 부재 상황을 인식해 스스로 'AI 부재 절전'으로 전환하며, 부재 패턴까지 인식해 절전모드로 더 빠르게 전환하는 등 불

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공간 내 활동량 변화를 감지해 냉방세기와 풍량을 조절하고,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직접품이나 간접품을 보내는 등 맞춤형 냉방이 가능하다.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AI 패적모드'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뿐 아니라 실내의 다양한 외부 요인까지 고려해 온·습도와 공기질 케어까지 가능하다.

유미영 삼성전자 DA사업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시스템에어컨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 AI를 적용하며 업계 혁신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AI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하고 적용 제품을 확대해 'AI 가전' 리더십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